

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 손 대표와의 관계에 다시 답하십시오

김문수 후보자와 리박스쿨 대표 손 모씨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확인됐습니다.

김 후보와 손 대표는 2022년 4월 김 모씨의 추모대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. 김 모씨는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의 초대회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극우인사입니다.

김 후보는 리박스쿨과의 관계성을 어제도 부인했지만, 당일 행사장 영상을 보면 김 후보와 손 대표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이래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.

뿐만 아닙니다. 리박스쿨은 또 다른 댓글의혹 조직인 「국민의눈」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.

전광훈 목사의 며느리인 양 모씨의 유튜브를 보면, 리박스쿨은 「국민의눈」 회원 모집을 독려했습니다.

이 「국민의눈」은 ‘매일 1시간 모니터 가능한 성실한 애국자’를 구한다면서 활동영역으로 ‘공무 담당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댓글, 전화, 시위, 청원, 고발’ ‘활동TF팀은 시위팀(현장, 전화, 댓글), 언론팀, 홍보팀’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
「국민의눈」이 또 다른 댓글부대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.

나아가 「국민의눈」의 대표자들 면면을 보면, 리박스쿨 손 대표는 기획운영회장을 맡았고, 김주성 전 교원대총장과 박인환 교수 등 평소 국민의힘과 함께 한 인사들이 대다수입니다.

이 중 박인환 교수와 석희태 소장은 최근 김 후보 지지선언을 했으며, 특히 박 교수는 직접 김문수 캠프에 참석해 김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있습니다.

김 후보자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. 정말로 리박스쿨을 모르십니까?

까면 갈수록 양파처럼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김 후보는 회피하지 말고, 모든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.

2025년 6월 2일

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
단장 강득구, 부단장 정준호·박관천